

‘한국판 뉴딜’ 160조 투입 일자리 190만 개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2025년까지 ...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선도형 저탄소 경제·포용 사회로 대한민국 근본적 변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선언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빠르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

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한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쉬 수 있는 상병 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 44조8000억원 ▲그린 뉴딜 국비 42조7000억원 ▲안전망 강화 26조6000억원 등이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네트워크·AI(31조9000억원)와 비대면 산업 육성(국비 2조1000억원), SOC디지털화(10조원) 등에 집중투자 된다. 그린뉴딜은 친환경 경제를 위한 녹색 인프라(국비 12조1000억원), 신재생에너지(국비 24조3000억원), 녹색산업 육성(국비 6조3000억원) 등이다. 고용안전망은 전국민 고용보험 등을 비롯해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 취업재교육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부영 과도한 특혜” 나주시에 쏟아지는 질타

나주시의원들 “용도변경 등 부영에 끌려가는 이유 뭔가”
나주시·전남도, 이종근 회장과 면담 사전 논의 의혹 여전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부지에 부영주택(주)이 추진 중인 5300여세대 고층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 특혜(광주일보 7월 2일자 1·3면, 7월 14일자 1면 등) 논란과 관련, 나주시의회가 14일 긴급현안보고를 받고 나주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나주시의회는 14일 오후 2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부영주택 대단위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나주시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전체 의원 15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안보고에서 다수 의원들은 부영주택 측의 과도한 개발이익의 책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1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450억원에 분양받은 75만㎡ 규모 골프장 부지 가운데 40만㎡를 기부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애초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녹지를 주거용지(제3종)로 용도 변경해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아파트 건설로 다수 학생이 유입되는 데 따른 교육당국의 초·중·고교 부지 배정 요구를 받고도 초등학교 부지만 계획한 사업안을 두고도 비난이 쏟아졌다.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고교 신설 용지를 포함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일부 의원은 "부영주택에 나주시가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다. 인허가권자가 나주시인데, 나주시가 왜 부영에 끌려가는

나, 어떤 계약서라도 존재하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나주시가 '최고층 25층 이하, 용적률 175% 이하'로 규정한 기존 '빛가람공동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 지침'을 넘어서는 '최고층 28층 용적률 179.94%'로 하는 부영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개발이익이 특정 기업에만 돌아가지 않고 다수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한 언론 보도, 의원님들의 지적,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해서 부영주택 측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의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이면 계약서'

존재 여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나주시는 이날 오후 광주일보에 "지난해 8월 한전공대 기부약정서를 나주시, 전남도, 부영주택 3자가 서울 부영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공대 부지 기부 약정서에 부영측은 기부를 기한 내에 하고, 나주시와 전남도는 잔존 부지 개발 시 용도변경 등에서 협력하는 등 상호 노력한다는 취지이지, 별도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심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나주시·전남도 관계자들이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을 면담한 사실이 맞물리면서, 나주시의 부인에도 이미 사전에 용도변경이 상호 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여전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한전공대와 아파트 53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CC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시급 8720원

내년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내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14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 된다. 올해보다 2만717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으로,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광주 총장중 야구부 학교폭력 시골 ▶6면
- KIA 나자와 반전의 시즌 ▶18면
- 동내책방 나들이 - 파종모종 ▶22면

Mercedes-Benz Certified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21개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 국내 최초 세계적인 품질 평가기관 TÜV 검수 및 인증 완료
- 1년 / 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 / 2만km 선드래 적용)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